

# 만민중앙소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news.manmin.or.kr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이 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발행처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이재록 인쇄인 김신경 편집인 반금선  
 등록번호 다-1840(1989. 7. 12.) e-mail: manminnews@hotmail.com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02-818-7000

## MANMIN NEWS

제396호(구416호) 2009. 8. 9.(격주간)



성령충만 기도회



첫날 강사로 선 당회장 이재록 목사



공과 시간



"주님, 죄송해요"



세족식



영성 체험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천국 체험 '애 여기가 천국이다'



예술제 대상을 받은 '주의 자녀' 팀



교사들이 준비한 인형극 '알프스 소녀 하이디'

## 주님 사랑에 울고 천국 느끼며 웃고 아동주일학교 2009 여름성경학교

'마음'(요 15:7)이란 주제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린 2009년 여름성경학교에 유아부, 유치부, 초등 1·2·3·4·5·6부 학생들이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 여름 무더위를 잊은 채 주님 사랑에 푹 빠졌다.

###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영성 체험 현장, 한 여학생이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흐느끼며 걸어간다. 이를 지켜보는 또래 친구들의 눈에서도 뚝뚝 같은 눈물이 푹뚝 떨어진다. 한 학생에게 기자가 우는 이유를 묻자 "저를 위해 손발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신 주님을 생각하니 오락실에 가고 친구들과 싸우고 엄마한테 거짓말했던 것이 너무 죄송해요."라고 말했다. 또한 "주님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학생도 있었다.

### 천국 체험과 제2회 만민아동예술제

성전 한 칸에는 '천국 체험관'이 펼쳐졌다. 천국 시민이 된 아이들은 보석으로 꾸며진 볼링장에서 직접 볼을 던져 보고, 황금 벤치에 앉아 하프를 쳐보고, 천사로 분장한 엄마가 씌어주는 면류관을 받아쓰며 천국의 행복을 만끽했다. 특히 '제2회 만민아동예술제'에서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율동, 연주, 워십, 태권무 등 발군의 기량을 선보였다. 대상은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과정을 성극으로 표현한 '주의 자녀' 팀에게 돌아갔다.

###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다양한 체험은 물론 말씀의 은혜도 충만하게 넘쳤다. 첫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라."는 말씀을 전했다. 이수진 목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것'과 이미영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 당부했다. 학생들은 사뭇 진지한 눈빛으로 말씀을 경청했다.

### 교사들의 사랑과 헌신

휴가를 이용해 참석한 교사들의 헌신도 은혜롭다. '마음'을 주제로 알찬 공과를 준비해 학생들에게 말씀을 먹이는가하면 '세족식'을 통해 아이들의 발을 씻기며 주님의 섬김을 배웠다. 이희선 목사가 인도한 성령충만 기도회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이 되어 사랑과 열정으로 기도를 도왔다. 이뿐 아니라, 인형극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정성껏 준비해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한편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GCN(세계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 방송으로 생방송되어 전 세계 어린이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성전 안에 가득 넘친 여름성경학교, 모든 일절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 | 칼럼 |

### 최고의 사랑

상대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줄 수 있다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랑에 감동을 받아 '나도 그런 사랑을 해 봤으면' 하고 참사랑을 꿈꾸기도 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국을 알려주고, 각색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등 선한 일만 하시다가 종국에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이 참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 구원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 이재록 목사 한겨레신문 연재 '길'에서

# 성령세례와 불세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듣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 3:11-12)

성령세례와 불세례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라면 성령세례는 기본이요 날마다 불세례를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도록 충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 1. 성령세례의 중요성

오늘날 교회에 다니며 일정 기간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교단 법의 절차에 따라 학습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란 물세례를 가리키며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즉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행위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 육적인 할례를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내면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물세례를 통해 하나님 자녀된 것을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상징적으로 베푸는 것이므로 만약 물세례를 받았다 해도 정작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후에 물세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때로는 물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먼저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고후 1:21-22).

## 2.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먼저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 외치며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듣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 하고 그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가 왜 주 예수님을 믿어야



당회장 이재록 목사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해야 하지요.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다른 죄들도 다 회개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달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 후에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바로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행 2:38).

불세례란 성령의 불이 임해 하나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와 찬송을 드리면 죄성과 질병 등 갖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한 성령세례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이므로(요 1:12)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성령을 받아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믿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달아지니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근본 죄성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므로 날마다 죄를 벗고 빛 가운데 살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해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세상과 짝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를 벗어버리고 성결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세례를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불세례를 받아야 하는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 3. 불세례와 성령의 역사

불세례란 성령의 불이 임해 하나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불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죄성과 질병이 태운받고, 가정과 사업터 일터에서까지도 원수 마귀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세례를 받으면 이전의 모든 죄는 깨끗이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는 죄의 뿌리가 있어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원수 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아 질병이 틈타거나 가정과 일터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성령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해도 계속해서 불세례를 받아 나감으로 죄의 근본 뿌리까지 태워 버리고 성결되어 항상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정 일터 사업터까지도 성령의 불담으로 두루 보호받아 시험 환난이 물러가고 하나님 축복과 행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불은 태워 없애는 작용을 하듯 불세례를 받으면 질병이나 마음의 죄성을 태워 영육간에 갖가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를 둘러 주시면 원수 마귀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며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원수 마귀 사단이 성령의 불에 접하면 그 능력을 상실해 마치 죽은 것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세례는 성령이 충만할 때 임하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집회를 할 때 먼저 회개기도를 통해 죄의 담을 헐고 성령 충만함은 물론 더 나아가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기 위해 기도한 뒤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성령의 불이 임해 모든 질병이 태워지고 죄악들이 벗어지며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와 찬송의 향을 날마다 쌓으면 성령의 불이 임해 죄성이 버려지고 질병 등 갖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 나아가 성결을 이루고 권능받은 참 자녀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세례를 받아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기쁨 준비 잘하는 알곡 성도가 되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 이재록 목사 신간 |

나를 찾아가는 신비로운 이야기 『영혼육』(상)



4차원을 넘나드는 심오한 영성과 통찰력으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성경에 기록된 육, 육신, 육신의 일, 육체, 육체의 일, 혼, 영 등에 대한 영적 의미와 난해구절이 풀리며, 성경과 인간의 근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성결과 권능 시리즈 입문편 1

간혹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나고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



## 권능

성결과 권능 시리즈 실천편 3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권능의 파노라마! 과연 어떤 사람들이 권능을 받는 것일까? 누가 삶 속에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일까?



##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성결과 권능 시리즈 실천편 4

낮과 밤, 하늘과 바다, 땅과 산천초목, 사람을 지어낸 근본의 소리! 이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제설교모음 기도편

기도는 전능자 하나님 마음을 두드리고 여는 열쇠, 시공을 초월하는 강력한 무기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 일어났다.



## 치료하는 여호와

주제설교모음 치료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 간과하는 말씀을 상기시켜 질병은 물론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을 제시한다.



# 믿음도 키우고 자신의 꿈도 이룬 박용우 집사의 '사업 성공 비결'

시련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해 사업터에 축복받은 그린 애드 대표 박용우 집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차량 이동광고 사업에서 비전을 발견한 나는 2006년 5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성공을 꿈꾸며,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해도 힘든 줄 몰랐다. 나의 꼼꼼한 일처리에 입소문이 나 사업이 번창하는 듯했는데 얼마가지 않아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다.

빛을 얻어 일을 해 주고도 수금이 안 되고 사기를 두 차례나 당한 것이다. 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감이 폭 끊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될 일도 안 된다'는 말이 이런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재정 상태는 엉망이었다. 맞벌이를 하는 아내 월급은 모조리 내 빛을 갚는 데 들어갔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

나는 3대대 교구장님과 32교구장님 등 여러 분에게 심방을 받으며 영적 원인을 찾았다. 그때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함을 깨달았다. 내가 하는 일은 차량 몸체에 광고를 새겨 넣는 작업이라서 운행을 쉬는 주일에 일감이 많다. 그래서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사업을 그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하나님도 내 사정을 아시겠지.' 온전한 주일성수에 대해 들어도 나는 예외라고 여겼다. 바로 그게 문제였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 깨우침이 더디었던 것이다.



제작한 차량 광고 앞에 선 박용우 집사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더 많은 일감이 들어와 사업 규모가 확장되고 ...

나는 눈물로 회개하며 주일에 해야하는 일감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처음엔 쉽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했지만 아직도 내 생각이 남았기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일하러 간 적도 있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었다.

축복을 받아 간증하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내 보여 상황을 반전시킨 사람들이었다.

많은 수입이 보장되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운행하는 차가 아니라 이제 막 출고하는 새 차에 광고를 새기게 해 주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였다. 공장은 주일에 쉬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평일에 일하게 되었다.

나는 조금만 수입이 생겨도 십일조를 따로 떼어놓았다. 어머니께서 절에 올려놓은 내 이름을 지우고, 이참에 담배와 술도 끊고 기도생활을 시작했다. 이전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결단이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사업터를 위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다.

그 뒤 신기하게도 여기저기 대기업에서 광고 발주가 들어왔다. 자본금이 많지 않은 터라 큰 광고 주문이 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서 제작비가 저렴하고 고정 수입이 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계약 수주가 늘어 사업 규모가 확장되고 십일조가 불어났다. 이러한 축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려웠던 시간을 통해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도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먼저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는 참된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 생각조차 하기 싫은 대상포진의 고통



아내 황광옥 권사와 함께

춘천만민교회 김동일 집사(남, 75세)는 몇 달 전 감동스런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다.

지난 5월 23일, 갑자기 왼쪽 옆구리에 통증이 오더니 붉은 반점이 배와 등허리로 넓게 되기 시작했다. 바늘로 찌시는 듯 아팠다. 대상포진이였다. 의사는 "빠르면 2달, 아니면 3-4개월까지 가니까 무조건 편히 쉬라"고 했다.

대상포진은 신경절에 숨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진 때를 틈 타 재활성화됨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노년층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

환부에 옷만 살짝 스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극심한 통증으로 밤중에도 몇 번씩 깨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아내 황광옥 권사는 그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도 환부에 무안 단물을 수시로 뿌리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며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했다.

6월 5일, 서울에 올라와 당회장님께 기도 받은 후 통증이 사라지고 환부에 살포시 딱지가 내려 앉았다. 일주일 뒤, 다시 한 번 당회장님께 기도받는 순간 불이 번쩍하면서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대상포진이 깨끗이 치료되었다.



치료 전

치료 후

##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

"내가 그동안 눈 여겨 봐왔는데, 조교로 일해 줄 수 있겠나?"

뜻밖에도 담당 교수님의 전화를 받은 신희진 자매(경희대학교 영미어학부 2학년)는 며칠 후 또 교양학부 교수님으로부터 같은 요청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그녀는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게 됐다. 학비 걱정 안하고 공부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저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다들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매 수업시간마다 강의실 맨 앞 자리에서 두 눈을 반짝이며 수업에 열중하는 그녀는 교수들 사이에서 꽤 소문이 나 있다.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기도하며 동시 통역가의 꿈을 키워온 그녀는 공부에 들어가기 전 늘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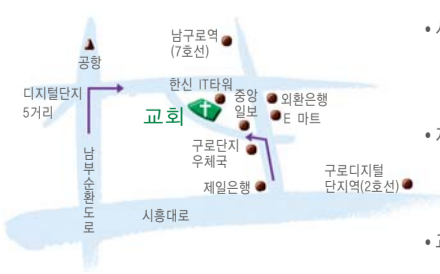
"하나님, 공부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보게 해 주시고 좋은 성적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해주세요."

요즘도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녀는 어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없었겠는가마는 하나님께 영광돌리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기에 오늘도 영어학원에서 실력 쌓기에 매진하고 있다.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대예배	1부 · 오전 10:0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배울·마리아]	오후 8:00
	2부 · 오전 11:3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 오전 11:40
새벽예배	새벽 5:00		저녁 · 오후 1:30

### 교회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팀 ☎ 02-818-7391~5)

###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070-8240-5609
  - 온라인 번호 (예금주: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 협 100072-52-061722  
우 체 국 012419-02-047269



# 가난한 농부의 아들, 대형쇼핑점 나쿠마트의 지역총괄 매니저가 되기까지

존 오우마 오치엥



무거운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춰 세운 나이로비 만민성결교회 작년 9월경, 나이로비 나쿠마트에서 도움을 주고받던 상사를 만나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분은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선포트 '브랜드 임포츠'(Brand Imports)라는 식품수입회사 창고 관리 자리를 알선해 주었습니다.

11월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나이로비 만민성결교회 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웬지 마음이 끌려 그 주일 바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전 대예배를 드린 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희열이 넘칩니다. 저녁예배 말씀은 무엇일까 무척이나 기다려졌습니다. 그때 정명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율기 강해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귀한 말씀이었고, 저도 모르게 두 볼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만과 아집으로 살아온 지난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주일성수와 십일조 등 신앙인의 기본조차도 망각한 채 살아온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 기도와 예배로 새로워진 삶

그 뒤 제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밤마다 열리는 다니엘철야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아침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매주 금요일예배 때 GCN(세계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 방송으로 시청하는 만민매거진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 믿음의 행함으로 갖가지 어려움을 극복한 성도들의 간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날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때는 월세를 내고 십일조를 드리고 나면 한 푼도 남지 않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송구영신예배 때, 첫 번째 신년 기도 제목인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나도 어려움을 극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소망을 굳건히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썼습니다.

2009년 3월 중순경, 서울 만민중앙교회를 다녀오신 정명호 목사님은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이란 설교를 통해 자신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 철저히 회개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큰 깨우침과 함께 감동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곧바로 제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한 후 정명호 목사님에게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았습니다.

###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축복

6월 2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했던 상사 분이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 제가 나쿠마트의 지역총괄 매니저(지점의 매장 관리 감독과 영업활성화 업무 담당)로 임명된 것입니다. 나쿠마트는 대형 마트로서 케냐에 19개, 우간다 캄팔라, 르완다 기갈리에 각각 1개의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식 직원이 2천 명이 상이 됩니다.

저는 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삶의 희망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복음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진한 사랑의 기도로 저뿐만 아니라 가정과 전 직원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며, 회사에 산적한 현안들이 해결받는 축복을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나쿠마트는 경영주가 인도인이기 때문에 주일에도 영업을 합니다. 그러나 이재록 목사가 총재로 계시는 빛과 소금교회(주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유통업과 요식업 종사자를 위한 초교파 선교단체)를 본받아 나쿠마트 직원 복음화에 전력할 것입니다. 역경 많았던 제 삶에 넘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쿠마트 직원들과 함께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4575-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8/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1-9663-0263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9870-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평택만민성결교회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488 삼익 2차 101동 704호 ☎031)665-1405, 011-358-5973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3708-1537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서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림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1-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2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대동 742-4 ☎054)464-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0-3153-172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929-1 ☎063)223-9991, 018-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1동 250-3 ☎063)853-0675,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48-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증리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165-1 ☎031)840-2906, 019-251-3149



## 레바논 | 장모님의 희귀병이 사진 기도로 치료되었어요

아나니아 카스타니안



아내 소냐와 함께

입니다. 저 또한 이 책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아 천국 소망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이재록 목사님 기도를 받고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간증을 소개합니다.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 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아랍어 판이 서점에 유통되어 레바논 국민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하는 이 책은 많은 이에게 감동과 소망을 주는 축복의 메신저

장모님은 원인 모를 전신 감염증과 동·정맥 폐쇄증으로 삶의 희망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혈액 흐름이 막히고, 면역체계는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지요. 병원에서도 천 명 중에 한 명이 걸릴까 말까한 희귀병이라는 말만 할 뿐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하면서 7년 동안이나 투병생활을 해야만 했지요.

그러던 2003년 4월, 중동에 오신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장모님의 사진 위에 기도를 해주실 때 저희 부부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뒤 장모님은 병원 처방 없이 깨끗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요. 할렐루야!

지금 장모님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건강한 삶을 사시며, 아랍어메이리트의 아부다비에 있는 동생 집을 왕래하시곤 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영육 간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